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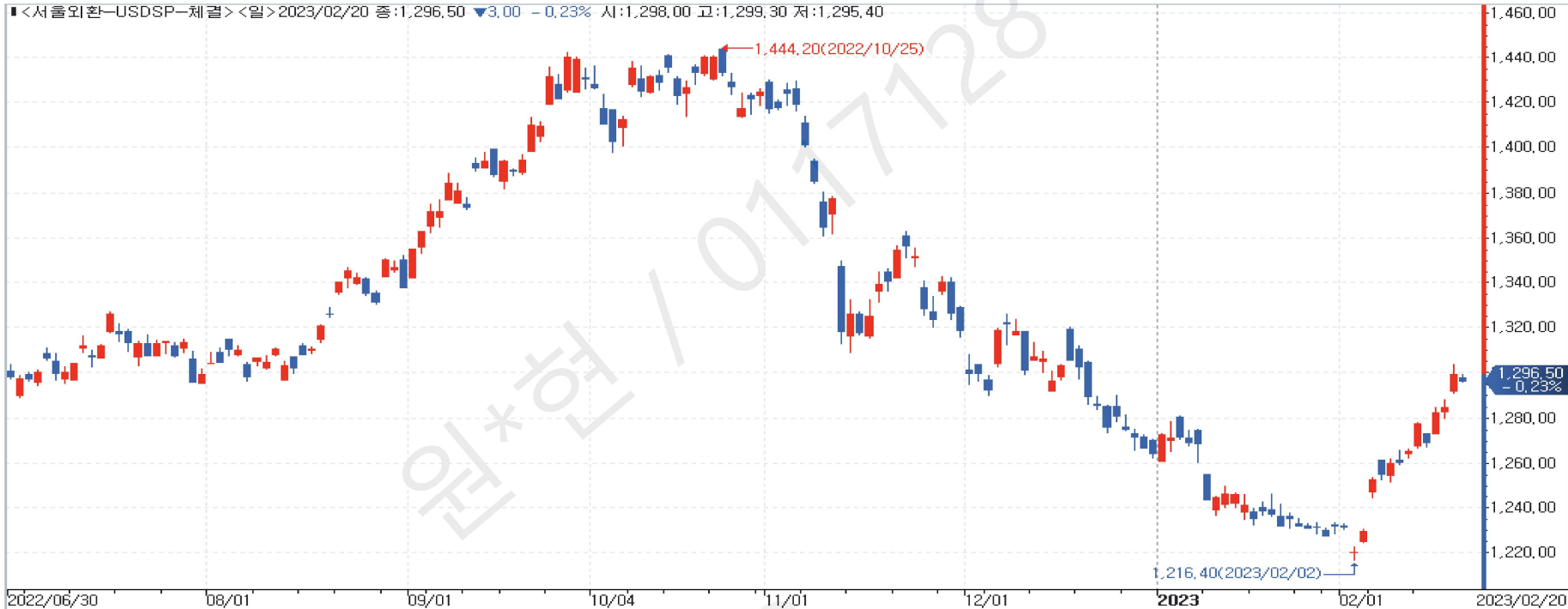
2023. 2. 20

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2/13~2/17)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1월 CPI에 대한 경계심리 확대 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수급상 국내 무역수지 적자 소식 등도 반영되며 큰 폭 급등 출발. 이어 미 CPI 경계 심리에 대해 시장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반영되며 상당 폭 하락 전환 시현. 중반 들어, 미 1월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영향이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 우려를 키우면서 재차 급등세를 보인 형국
- 후반 들어, 미국 물가 지표에 더해 소매판매 지표 또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금리인상 기조 언급 등으로 상승 추세 유지 후, 주 후반, 일부 연준 위원들의 50bp 금리인상 발언 등 연준의 매파 성향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속에 장중 1,300원 터치 후 일부 되돌림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의 고용과 소매판매 등 CPI의 급격한 둔화를 기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기조 등이 달러 강세에 추가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이러한 물가 지표 관련하여 주 후반 미 PCE 물가 향방 등이 달러 방향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내적으로 전월 무역수지가 월 기준 역대 최대인 126.9억 달러를 기록한 영향 속에 금월까지 적자 기조 지속 우려 등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1,300원대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고점인식 달러 매도 확대 가능성 등은 원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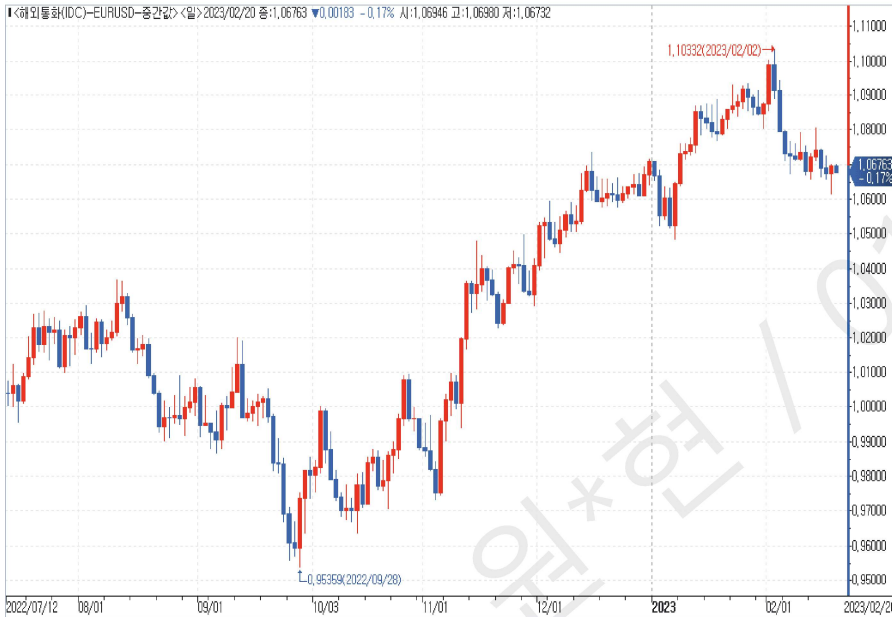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69.7	1303.8	1266.3	1299.5	+34.3

예상거래범위

1,285원 ~ 1,305원



엔·유로화 동향 [2/13~2/17]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화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강화에도 유로존 경제가 예상 침체 우려보다 크게 견조함을 보일 것이란 전망 등으로 강세 출발. 이어 미국 1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상회했음에도 유로존 4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전기 대비 0.1% 증가로 나타나면서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소매판매 지표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 반영되며 유로화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미국 CPI, 소매지표에 더해 PPI까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돈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긴축적 매파 성향 반영 등에 따라 약세 추세 지속 후, 주 후반, 연준의 매파적 언급 등에도 금리 인상 폭등에 대한 이견 표출 등으로 달러화가 혼조세를 보인 양상 속에 ECB 위원의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시장 평가보다 다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따른 ECB 매파 성향 강화 인식 등으로 유로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8	1.0804	1.0612	1.0694	+0.0014



엔화 동향

- 주초, BOJ 신임 총재 후보에 대해 시장의 매파성향 기대보다 다소 비둘기적 성향으로 확인되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 1월 물가 상승 둔화세 약화 속 연준위원의 매파적 언급 및 신임 BOJ총재의 기존 통화정책 변경에 다소 시차를 둘 것이란 기대 등으로 약세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소매 판매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중반까지 약세 지속
- 후반 들어, 미국 생산자 물가(PPI) 지표 마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연준위원들의 매파 성향이 달러 강세를 크게 견인하며 엔화 약세 이어진 국면. 이어 주 후반, 앞서의 연준 금리인상 폭 등에 대한 연준내 엇갈린 의견 등에도 긴축 강화에 대한 매파 지속 등이 미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침에 따른 측면이 캐리 통화인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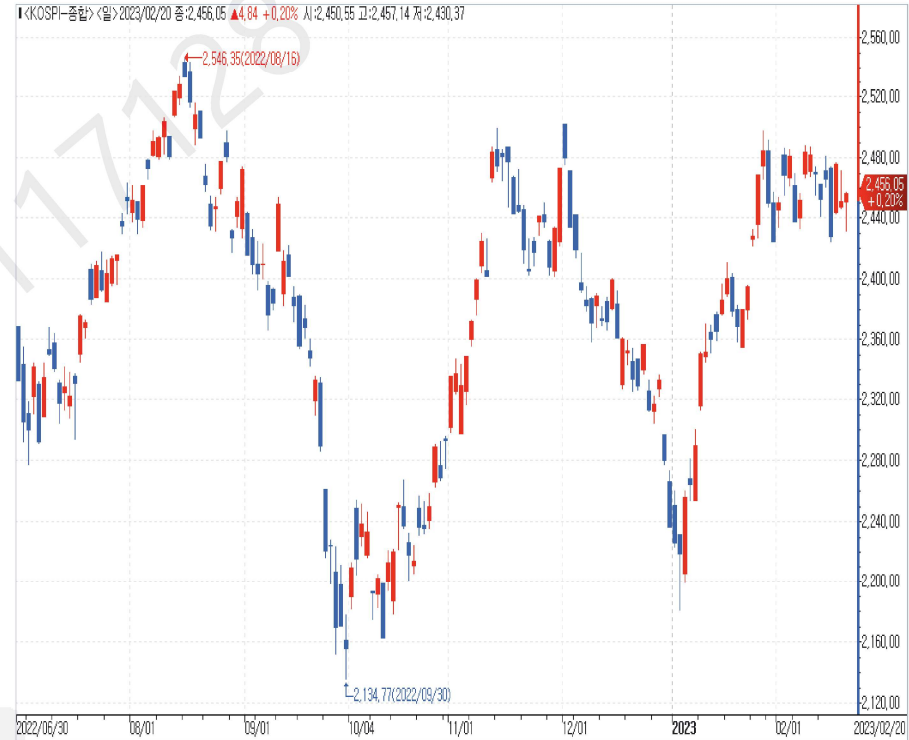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4	135.1	131.2	134.2	+2.7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13~2/17)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미국 1월 CPI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강화되면서 급등세로 출발. 이어 CPI 발표를 앞두고 금리 급등이 과도했다는 인식 등으로 소폭 되돌림 양상 시현
- 중반 들어, 미국의 1월 CPI가 전년대비 6.4%를 기록한 가운데 시장 예상 6.2%를 상회함에 따라 연준의 긴축 강도가 재차 확대될 것이란 우려 반영되며 3.5%대로 반등
- 후반 들어, 미국 고용 호조 이후 소매 판매 지표도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연준 긴축 지속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세 이어간 가운데, 주 후반 연이은 미국 생산자 물가 지표 또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더 오래 유지될 것이란 전망 반영 등으로 급등세 나타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고용지표 호조 이후 CPI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위험시장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CPI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며 상승률이 둔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 등으로 하락 추세 되돌려진 국면 시현
- 중반, 미국 1월 CPI 지수가 전년대비 6.4% 상승한 가운데 시장 예상 6.2%를 상회하며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재차 반영되며 크게 하락
- 후반 들어, 물가 둔화세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어진 미국 소매 지표가 견조한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측면 반영 등으로 상승 후, 주 후반, 미국 PPI 물가지표도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긴축 장기화 우려,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 언급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락 마감